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남선교회  
신년월례회**  
일시 2월 10일(주일) 낮 12시 30분  
장소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



### <외국인 설잔치> 다채로운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한 교제의 장

2월 3일 주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성도 250여 명 참여로 기쁨 넘쳐

**함께 웃고 즐기며 이국땅의 외로움 달래**  
“새해 벽 마니 바쁘세요~” 어설픈 우리말 발음의 외국인 아이들이 김정석 담임목사 내외를 향해 합동세배를 한다. 세배를 할 줄 모르는 아이는 엉거주춤 옆 사람의 세배를 바라보다 이내 따라한다. 담임목사의 덕담과 세배돈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광림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지난 2월 3일(주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외국인 설잔치>를 열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콩고, 몽골,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250여 명은 먼저 광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후 여선교회가 제공한 떡국과 불고기, 잡채 등 명절 음식을 먹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설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정을 나눕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보내는 명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시간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이 기쁨이 고

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또 올 한해 목표한 바를 꼭 이루길 바라며 수고하는 외국인 제자센터 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센터 회원들에게 점퍼 200벌을 준비해 전달했다. 광림의 각 선교교회와 성도들이 후원한 선물들도 참석자 모두에게 전해져 큰 기쁨을 주었다. 식사 후에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국악 찬송가 연주와 함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감상하며 ‘일쭉~’ ‘좋다~’ 등의 추임새를 따라해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각 선교교회별로 자국의 민속음악을 선보이며, 서로 다른 문화지만 한데 어우러져 잠시나마 이국땅에서의 고된 생활을 잊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불어권선교회 회원의 결혼식도 열려**  
2부에서는 정준수 기획목사의 주례로 외국인제자센터 불어권선교회 회원인 안도니오

세바스티아노와 이용기 페드로의 결혼식이 있었다. 앙골라(아프리카)에서 온 신랑과 신부는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회원들의 축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마음에 새기며 백년가약을 맺었다.  
  
신랑 세바스티아노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도와준 광림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처음 와 많이 울었었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우리부부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고, 기독교와 광림교회를 축복하길 기도드립니다”라며 감격했다.  
**외국인 사역은 현지 선교사 양성의 과정**  
2004년 개관한 광림외국인제자훈련센터

는 현재 2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유학생 신분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 1천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이곳 센터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4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어 자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상용 장로(국내선교위원장)는 “설 명절 고향에 갈 수 없는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광림의 각 기관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사역은 현지 선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매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교회학교에서, 어른들은 각 선교권역으로 나누어 자국어로 예배드립니다.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자민족 선교를 위한 평신도선교사로 세워지도록 개개인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주변의 믿지 않는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그 첫걸음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환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사무엘상 7:11~17)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긴 노예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쫓과 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그저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 왕을 세우고 군사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사무엘상 7:11~17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더라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 해마다 벤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십니다. 절대강자였던 블레셋을 넘어섰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셋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해마다 벤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16절)라고 합니다. 벤엘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삼촌 집에 내려갈 때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육지 같이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육지 같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증거물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벤엘과 길갈, 미스바를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회복 역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될 때, 환란과 위험에서 구해주시며 평강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따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 가운데 종교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저들의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종교의 혼합주의를 제하여 버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접한 것이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욕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당시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와 쉰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씁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기념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 첫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형학도, 지리학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시간적 의미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현재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제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든 빨리 응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죄에 대해서도 즉각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어, 그것은 안 되지요!”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 둘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집회를 하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강자 블레셋에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잃어버린 땅까지 회복시켜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예배는 <찬양의 밤>

예배의 중심이 찬양,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



**찬양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가 진행**  
 지난 1월 27일 첫 번째 <찬양의 밤> 주일 저녁예배가 본당에서 은혜롭게 시작되었다. <찬양의 밤>은 저녁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각 교회마다 저녁예배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저녁예배의 가치를 지키면서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열어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저녁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한국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찬양의 밤>은 처음부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어 마지막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예배의 중심이 찬양이 되어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찬양 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동안 갈급했던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자리이다.

<찬양의 밤>은 예배 주체가 성도들이 되어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중심을 주님께 두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리이다.

**<찬양의 밤>이 다른 예배와 다른 점**  
 기존 예배에서 찬양은 예배를 돕는 시작에 머물렀다. 그래서 시간도 15분 정도로 짧게 진행했는데, <찬양의 밤>에서는 찬양이 중심이 되어 최대한 50분 정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로 진행된다. 첫 <찬양의 밤>은 새로운 예배형식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찬양의 중요성과 찬양을 드리는 이유**  
 성경 속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으로 나타내고 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기록하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찬송 중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 성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찬양의 밤은 한 사람만 인도하는 것 아니다.**  
 특별히 기존 찬양예배에서는 한 명의 찬양 인도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지만, <찬양의 밤>에서는 5명의 부목사들과 콰이어가 함께 인도하며 찬양하게 된다. 인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시너지 효과가 더해진다.

<찬양의 밤>은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찬양이 중심이다. 누구나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모든 초점이 성도들이 가장 편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찬양의 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이다.

손병규 목사(문화홍보실)

##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옷과 후원금 전달



**매년 이웃돕기에 동참하는 광림교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진행되는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모금된 성금은 해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광림교회는 지난 1월 25일(금) 이 행사에 동참하며 신사주민센터 측에 따뜻한 겨울 점

퍼와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신사주민센터 이규형 동장은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광림교회에 감사를 표했다.

정준수 기획목사는 “우리 광림교회가 신사동에 위치해 있고, 평소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추기 위해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화목 기자 godlygirl@naver.com

## 청년 복음화의 황금어장 <연무대 군인교회> 봉헌예배



지난 1월 22일(화)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봉헌식이 있었다. 새 예배당은 5천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이며,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반원 스타디움형 건물로 어머니의 품과 닮아 있

다. 그동안 연무대군인교회 건립은 한국교회의 기도제목이었다. 이전에는 수용인원이 2천여 명이었는데, 주말에 교회를 찾는 훈련병은 1만여 명에 달했다. 예배당은 넓고 좁았으며, 여러 차례 나누어 예배를 드려

야하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훈련병들은 밖에서 눈비를 맞으며 다음 예배를 기다려야만 했다.

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 봉헌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200억 원의 건축비를 위해 614개의 교회와 단체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헌신이 모아졌으며, 광림교회도 6억 원의 건축비를 내며 헌신에 동참했다.

훈련소에서 주말에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회를 찾아온 훈련병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 포토 뉴스



남선교회 사랑의 쌀 전달

1월 27일 주일 오전부터 광림사회봉사관 1층에서 사랑의 쌀을 나눠주었다.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교회학교 겨울수련회가 부서별로 진행되었다.



잠비아 월드비전 팀 광림교회 방문

1월 27일 잠비아 월드비전 일행이 광림교회를 방문하고 3부예배를 드렸다.

### 담임목사 동정



- 1/27 성가대임명예배
- 1/31 여선교회총연합회 임원회
- 2/3 외국인 설잔치
- 2/10 남선교회총연합회 신년월례회
- 2/10 하늘문교회 이취임예배

### 감독 동정



- 2/3 광림북교회 주일예배
- 2/10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아버지의  
굳건한 신앙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며칠 뒤에 마을은 붉은 세력에 점령되어 온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우리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은 끼니를 이어갈 양식조차 떨어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무렵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른 마을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선심을 썼다. “면사무소 창고에 쌓여 있는 쌀 한 가마를 드릴 테니 받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펄쩍 뛰면서 사양하셨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왜 받아 먹는단 말인가! 나는 받지 않을 테니 보내지 마시게!” 이렇게 사양하며 끝내 거절하셨다.

세상은 이미 붉게 바뀌어졌고, 우리 군은 낙동강까지 쫓겨 가고 있던 때, 까짓 쌀 한 가마니 정도 받아 먹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랴 하는 마음으로 몇몇 주민들은 그의 선심을 받아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으니, 자칫 아버지께서도 범죄에 휘말릴 뻔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붉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은 평안을 되찾았고 그 때 붉은 정권에 부역했던 인사들과 쌀 한 톨이라도 불법으로 가져간 주민들은 경찰의 색출 대상이 되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세상이 평정되고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온 뒤에 아버지는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경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때의 기억은 칠십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내게는 아버지께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며칠 전에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추모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읽고 고인의 행적과 유훈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신앙을 간략하게 전했다.

나는 2녀 1남의 자녀와 두 명의 손자들 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자녀들에게는 물론 내 자신에게도 기독교인이라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이 마음을 버리지 말 것을 훈계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유산이 있다면 물질적인 것보다 영원히 남아서 변하지 않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주장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 옛날 감리교 세례교인이셨던 아버지의 신앙적 양심이 항상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나는 늘 기도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하였느니라”(딤후 1:19)



서대화 권사(남성성가단)

[찾아가는 인터뷰 2회]  
구원영 집사 (유다지파)

〈광화문연가〉에서 멋진 연기 보여준 믿음의 자녀



믿음 안에서 예술가의 길을 걷다.  
뮤지컬 <광화문연가>에서 ‘월하’ 역할로 멋진 연기를 보여준 23교구 구원영 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역할 자체가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이 가장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대치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시절 뮤지컬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어요. 공연과 친구가 더 좋았던 시기였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후 서른두 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뮤지컬에서 더블캐스팅 되었던 여배우가 어느 날 저에게 ‘원영아 기도하자!’ 하면서 저와 돌이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딱히 힘든 일도 없었는데 기도 중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그 여배우

가 ‘원영아.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주래!’ 하면서 말씀CD를 한 장 주었어요. 잠자기 전 CD를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게 믿어졌어요.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복음이 저에게 뜨겁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주님이 예비하신 때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 날이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서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다시 다니게 되었고 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시간 내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흐르더라구요. 제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관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있을 때는 <각지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이나 공연 전에 믿는 배우들끼리 모여 팀원들의 화평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은 없지만 힘들고 지친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모여 함께 기도하며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은?** 뮤지컬 배역이 펑크 나는 일로 수입이 없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배역을 맡아 몇 백만원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주일 설교시간에 어느 분의 간증에 도전을 받아 제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제가 원하는 액수만큼 다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후 정확히 6개월 후 가감 없이 제가 원하던 액수를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그 돈으로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기도로 준비하고 만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만나고 5년간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키, 외모, 성격 등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기도를 완벽하게 응답해주셔서 모든 게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살면서 고쳐나가라고 딱 한가지는 남겨주셨어요. 남편은 같은 뮤지컬 배우로 만났고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광림교회 유다지파 콰이어로 활동하고 계신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30년 넘게 다닌 교회라 결혼하고 바로 광림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가졌던 소원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주일에 여건이 안 되었는데 결혼하고 뮤지컬을 줄이면서 4부예배 유다지파 콰이어로 찬양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뮤지컬 무대와 달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019년 기도제목은?**  
유다지파 콰이어 멤버들이 늘 화목하고 나타나되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결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삶에서, 세워주신 곳에서 주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력이 길러지기를 기도합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서울남연회 제39회 강남지방회〉에서 신천장로 안수식

2월 17일 주일 오후 2시, 광림교회 나사렛성전에서



〈서울남연회 제39회 강남지방회〉가 2월 17일(주일) 오후 2시에 광림교회 나사렛성전에서 열린다. 이번 강남지방회에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은퇴찬양예배, 별세추도예배, 장로안수식, 폐회예배 순으로 이루어진다. 집례는 김창오 감리사가 맡으며, 지방회원 구역대표 및 시상자들이 참석한다.

개회예배는 김성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며, 설교는 김창오 감리사가 맡는다.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는 별세추도예배에서는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가 귀한 말씀을 전한다. 시상에는 전도, 성경다독, 성경필사, 근속교사(10년, 20년, 30년) 등 일년 동안 신실한

신앙생활과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해 애쓴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상이 준비된다.

이날 전도상을 받는 수상자는 광림교회 천양순 권사(127명), 임옥주 권사(105명), 염영자 권사(49명) 석태순 권사(48명), 문송철 장로(35명), 신만용 권사(34명), 한명수 권사(32명), 이성수 권사(30명) 등 총 8명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소천한 박남실 장로의 별세 추도예배를 드리며, 이번엔 은퇴하는 광림교회 김용배, 신성섭, 정은기, 신덕철 장로 4명의 은퇴찬양예배도 함께 드린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금년에 새로 하나님과 광림교회를 위해 헌신할 장로로 세워진 한채수, 안경섭, 문송철, 권후원, 박기연, 장대진, 신성수, 이재은, 최동호, 송병제 10명의 장로 안수식도 가질 예정이다.

박신애 기자 milkpsal23@naver.com

# 3.1 운동 100주년, 독립운동 앞장선 기독교인들

## 2.8 독립선언 소개한 김마리아, 민족운동의 요람인 오산학교 교장 이승훈

### 3.1운동이 전국적인 대중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춘 교회와 교단 조직이 있었기 때문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919년 3월 1일 전후에 해외와 전국에서 일어난 폭발적 항일 투쟁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다. 1911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무단통치를 통해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침탈, 가혹한 탄압정치를 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조직적으로 억압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3.1운동이 전국적인 대중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와 교단의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덕주 교수는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5% 수준에 머무는 소수종교였지만, 3.1운동 전 과정에서 기독교계가 적극적이고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성향으로 교회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기독교의 초교파 연합운동이 종교와 신분을 초월한 항일민족운동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독립운동가를 소개한다.



**김마리아**  
(1892. 6. 18.~1944. 3. 13.)  
3.1운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2.8 독립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18년 1월 8일 1차 대전

에 대한 전후 처리 지침으로써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었다. 그러자 민족지도자들과 해외 유학생들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독립선언을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계획이었다.

김마리아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정신여학교의 수학교사였다. 선생의 재능과 조국에 대한 열정에 감동한 루이스 교장의 추천과 재정 지원으로 재직 중 일본에 유학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선생은 1919년 2월 8일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독립선언대회에 참가하다 연행되었다.

선생은 전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2.8 독립선언문 10여 장을 옷 속에 감추고 부산으로 들어왔다. 이후 교육계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2.8 독립선언을 소개하고 국내 독립운동을 촉구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도왔으나 조직원의 배신으로 투옥되었다. 일제의 고문과 악형을 당한 뒤 병보석으로 출소한 뒤 중국 상하이로 피신했다. 그러나 상하이 독립운동가들의 거둬들 분열에 미국으로 떠나 사회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1928년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독립운동 단체 '근화회'를 조직했다.

1933년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지만, 일제의 압박으로 서울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원산 마르다 윌슨신학교에 부임, 신학을 강의했다. 이때에도 종교 모임과 강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지속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고문 후유증이 재발, 광복을 앞 둔 1944년 3월 13일 순국했다.



**이승훈**  
(1864. 3. 25.~1930. 5. 9.)  
이승훈 선생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16세에 늦그릇 가게의 노동자가 되었다. 훗날 뛰어난 사업가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국제투자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민족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개인의 영달보다는 민족을 구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담하여 평안북도 총감이 되었으며, 서적출판과 공급을 목적으로 태극서관 서점을 경영했다. 이어 민족운동의 요람이 된 오산학교를 개교하여 교장이 되었다. 그는 기독교 장로로 독실한 신앙을 갖고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러나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평안도 지역 기독교 계열, 신민회 인사들과 함께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하였다. 3.1운동이 있기 전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이승훈 선생의 주도로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종교를 초월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의 3대 원칙에 따라 다른 종교와도 연합전선을 형성해 3.1운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선생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독립선언 이후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1922년 7월 22일에야 출옥했다. 이후 오산학교를 경영하며 교육운동에 앞장서다 1930년 5월 8일 67세에 운명하였다.

권순정 목사(목회연구원)

### 신앙 간증

##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해 몽골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불편함, 어려움, 특히 상처에 견디지 못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낙담한 모습에도 몽골 선교팀장으로 섬기게 된 이유는 몽골 선교지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부름받았고,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징표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절대 이끌어갈 수 없음을 아시고 기도과 재정의 동역자, 팀원 동역자로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매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리 없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 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으며,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15명이라는 많은 팀원을 사랑으로 묶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부여하셨던 것처럼, 함께 간 팀원들에게도 몽골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힌티 아이막의 사람들과 몽골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청년들을 준비시키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다면 몽골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흔들리더라도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가끔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로 살다가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발버둥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윤경 성도(청년부)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1,200여 명 성가대원들

## 모범대원 19명, 30년 근속 9명, 40년 근속 1명, 은퇴대원 5명 시상



**음악위원장, 음악부장, 성가대장 등 임명돼**  
지난 1월 27일 주일 저녁예배가 광림교회 본당에서 <성가대임명예배>로 드러졌다. 이 예배에서 적극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200여 명이 성가대원으로 세워졌다.

음악위원장으로는 현명효 장로가, 광림남교회 음악부장으로서는 김홍철 장로가 임명되었

다. 성가대장으로는 미가엘성가대 김두원 장로, 나사렛성가대 장준규 장로, 갈릴리성가대 장대진 장로, 남성성가대장 김일환 장로, 여성교회성가대 최영민 권사가 임명되었고, 각 성가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장도 함께 임명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모범대원으로 박연자 권사 외 19명, 30년 근속으로는 미가엘성가대 주운

순 권사, 나사렛성가대 이윤석 권사, 김미령 집사, 갈릴리성가대 송영우 장로, 송재열 권사, 이종만 권사, 남성성가대 송영우 장로, 서대화 권사, 김기에 집사, 광림남교회 가나안성가대 김진수 권사, 40년 근속으로는 광림남교회 새하늘성가대 한우현 권사가 수상했다. 은퇴대원으로는 미가엘성가대 박숙자 권사(36년), 손성민 권사(24년), 이효영 권사(35년), 나사렛성가대 김태근 권사(33년), 갈릴리성가대 강미근 권사(16년)가 재직패를 받았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성가대는 뜨거운 열심과 사랑, 신앙고백이 있어야 가능하다. 찬양은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곡조 있는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감동과 감격스러운 은혜가 된다. 성가대는 이 찬양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

- 목회현장 -



이광진 목사(4선교구)

교회 부흥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는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가는 할머니들과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A권사님은 교구 부흥을 위해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바울선교회장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 사람의 선교회원을 세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선교회로 끌어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정성을 봐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엄마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교회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세심함을 통해서 교구는 부흥합니다.

B권사님은 교구 부흥을 위해 기도예 목숨을 건 분이십니다. 특별히 교구의 남성속회를 인도하시며 남성속회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3시간 이상 교구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권사님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내 놓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기타로 반주하면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속회에 참석해야 할 대상을 한 번씩 정하시고 그분이 나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하시며 찾아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교구는 부흥합니다.

C권사님은 교구 부흥을 위해 전도에 목숨을 건 분이십니다. 무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히며, 추운 겨울 손을 비벼가며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내리며 전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재건축된 대단위 단지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그 아파트를 누비며 전도하던 그 열정으로 다시 세워진 아파트를 위해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열정을 통해서 교구는 부흥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도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 광림남교회 -



살림, 부족한 세계 광림남교회 음악위원장직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자에게 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마음이 벅차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제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광림남교회 음악부는 주일 2부예배를 섬기는 가나안성가대와 3부예배를 섬기는 새하늘성가대가 있으며, 찬양단으로 올프레즈 찬양단이 있습니다.

가나안성가대는 2부예배를 섬기기 위해 주

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합니다. 찬양은 한국 작곡가의 곡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편곡된 곡을 찬양합니다.

3부 새하늘성가대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영감 있는 곡을 주로 찬양합니다. 또한 올프레즈찬양단은 금요 은혜의 밤과 주일 저녁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프레즈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 주일 저녁예배와 금요철야예배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광림남교회 음악부의 특색 있는 연중행사로 는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연중 작은 음

악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나안성가대와 새하늘성가대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가대별 단합대회, 파트별 간담회, 야외예배, 연말송년회를 진행하여 화합과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 전공자들이 대원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해 매주 성악 발성 및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찬양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나안성가대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전도를 위한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2019년은 음악부원 모두가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양 성가대가 성가대원 100명, 오케스트라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음악성 뿐만 아니라 영성을 모두 갖춘 성가대 및 찬양단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음악부 위원장으로서 순종하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 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음악부와 광림남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김홍철 장로(광림남교회 음악위원장)

처음 열린 광림북교회 <스데반·마리아 가족 페스티벌>

- 광림북교회 -



“목사님, 우리 광림북교회의 젊은 스테반, 마리아 가정들도 연합 모임을 한 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답고 단단한 가족공동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안수 장로의 제안으로 광림북교회에서 지난 1월 19일(토) 오후 5시, 처음으로 광림북교회 <스데반·마리아 가족 Festival>이 열렸다. 20대에서 50대의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공동체의 소속감을 갖도록 마련된 행사였으며,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의 목적도 담고 있었다.

교회 로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으며, 광림북교

회 성도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진주 교수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다채로운 연주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박중섭 목사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며 광림북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광림북교회가 믿음의 성도들로 넘쳐나길 간구했다.

예배와 친교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주방을 맡아 수고해준 많은 권사들의 헌신 덕분에 스테반, 마리아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선교회 박기연 회장과 여선교회 이종옥 권사의 후원으로 참석한 가족들에게 광림교회 로고가 새겨진 물병, 앞치

마, 설교 노트 등 감사의 선물도 증정했다. 마지막 순서에서 남선교회가 후원한 BBCH 홀 뮤지컬 티켓을 추첨하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 기획된 행사였기에 참여 가정은 8가정 21명 참석이란 적은 수로 끝났지만, 다음날 주일에는 새가족 20명이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총 135명이 출석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감충원 집사(비전본부장)는 “광림북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광림북교회 스테반, 마리아 가족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감동으로 시작된 <안디옥개신교회>

현지인과 시리아 난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



난민청소년들 모임



크리스마스 예배 후 태권도 발표



세례받은 현지인 성도들(모자이크 처리)



어린이 축구의 날



청소년 여름수련회



마약퇴치를 위한 축구교실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2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안디옥개신교회는 전쟁을 피해 나온 시리아 난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나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다.**

세례받은 터키인과 시리아인이 55명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 수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사도 바울의 발자국이 있던 그 땅. 1993년 수리아 안디옥 동쪽 외곽에 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박해를 피해 AD50년 경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예배와 설교를 했던 곳)를 찾은 김선도 감독님 내외와 성지 순례 일행은 강한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감동으로 새로운 선교 비전을 품게 된다. “이 안디옥에 개신

교회를 세웁시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로 2000년 6월 세워진 ‘안디옥개신교회’는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이 된다. 2007년 안디옥개신교회에 파송된 장성호 선교사는 “터키인의 98프로는 무슬림이다. 주민등록증에도 종교를 표시한다. 일상생활에도 종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땅에서 10년간 하나님 품에 안겨 세례 받은 터키인과 시리아인이 55명이다. 세례 받은 성도들은 영적 세례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큰일이다. 세례교인들 중에는 꿈, 환상, 계시 등을 통해 회심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2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안디옥개신교회는 전쟁을 피해 나온 시리아 난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나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다. 이곳에서 전도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한 구호사역이 중요하

다. 지난 연말에 사랑의 선물을 담은 슈박스는 현지에서 각각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촌 어린이들에게는 음식물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고, 교회 내 터키 어린이, 시리아 어린이와 터키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는 학용품을 나누어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다.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이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세례를 받은 아버지도 있고, 난민 세례자 중에는 회심하고 시리아 난민을 위해 야학과 청소년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는 성도도 있다. 매주 예배 후에는 축구를 통해 어려움을 겪은 20여 명의 현지 청소년들이 교회 수련회 참여와 공동체 간에 교류로 회복되어가고, 현지인의 자발적 주도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안디옥개신교회는 공인 받는 개신교로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4P를 선교 전략으로, 첫째, 문화와 언어 습득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개척(Pioneer) 둘째, 선교사 파송으로 부모 역할(Parents) 셋째, 터키어 아랍어 예배로 현지인 리더 양성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동역자 관계 (Partnership) 넷째, 현지인들의 주도로 자치 자립할 수 있는 아랍어 공동체 탄생으로 선교사는 참여자(Participant)로 세웠다. 현재 터키어 예배 공동체 30여 명, 아랍어 예배 공동체 20여 명, 어린이 2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장성호 선교사는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개신교회 내 터키, 시리아인 리더들이 잘 세워져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미군 철수로 인한 혼란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 사역과 교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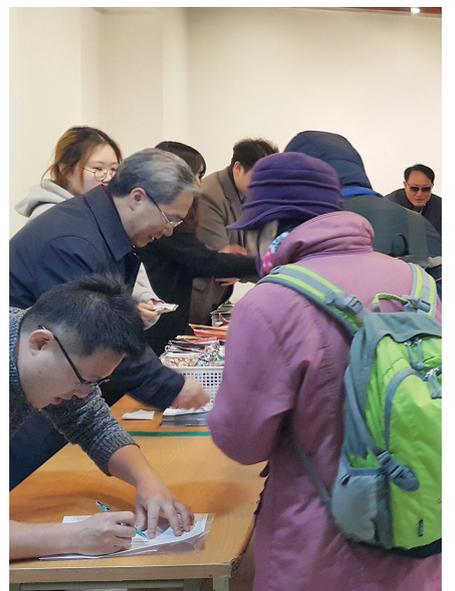
## <사회사업위원회>, 설 앞두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매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만나는 어르신들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신동우 장로)는 설날을 앞둔 1월 30일(수) 새벽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장천홀(강남구 신사동) 1층 로비에서 교회로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사랑나눔행사를 베풀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는 평소보다 많은 용돈과 한방과스, 핫팩, 베지밀, 사탕 등의 선물을 드렸다. 사탕 봉지에는 짧은 성경구절을 넣었는데, 이는 광림평생대학(SEC)에서 매년 수고를 해준다. 행사 시작하기 앞서 정준수 기획목사가 봉사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으며 “사도 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는 과부로서 본인도 어려웠지만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겹옷을 만들어주고, 선행과 구제로 평생을 예수

님 말씀대로 살았다. 노령화시대를 맞아 소외받는 노인은 늘지만 관심은 점차 줄어드는 때 나눔과 돌봄이라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가 다비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지금까지 광림교회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어르신들은 516명에 이른다. 이들의 명단을 적어서 확인하는 일은 청년부의 한성준 성도가 5년째 봉사하고 있다. 이날은 총 203명이 다녀갔는데, 눈에 띄는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다. 그동안 참석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99세 되는 어르신은 최근 미국에 있는 자녀가 들어와 요양병원에 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또 매주 나와 큰소리로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어르신도 있

다. 가장 멀리 있는 인천공항에서 오는 어르신은 첫차를 타고 와도 교회에 7시 가까이 되어서 도착함에도 빠지지 않으신다. 어려운 어르신돕기 행사는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설날 행사의 모든 비용은 안병철 권사가 후원하였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 2명과 함께 나와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안 권사는 “봉사를 하면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게 된다.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베푸는 가운데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리라”(잠언 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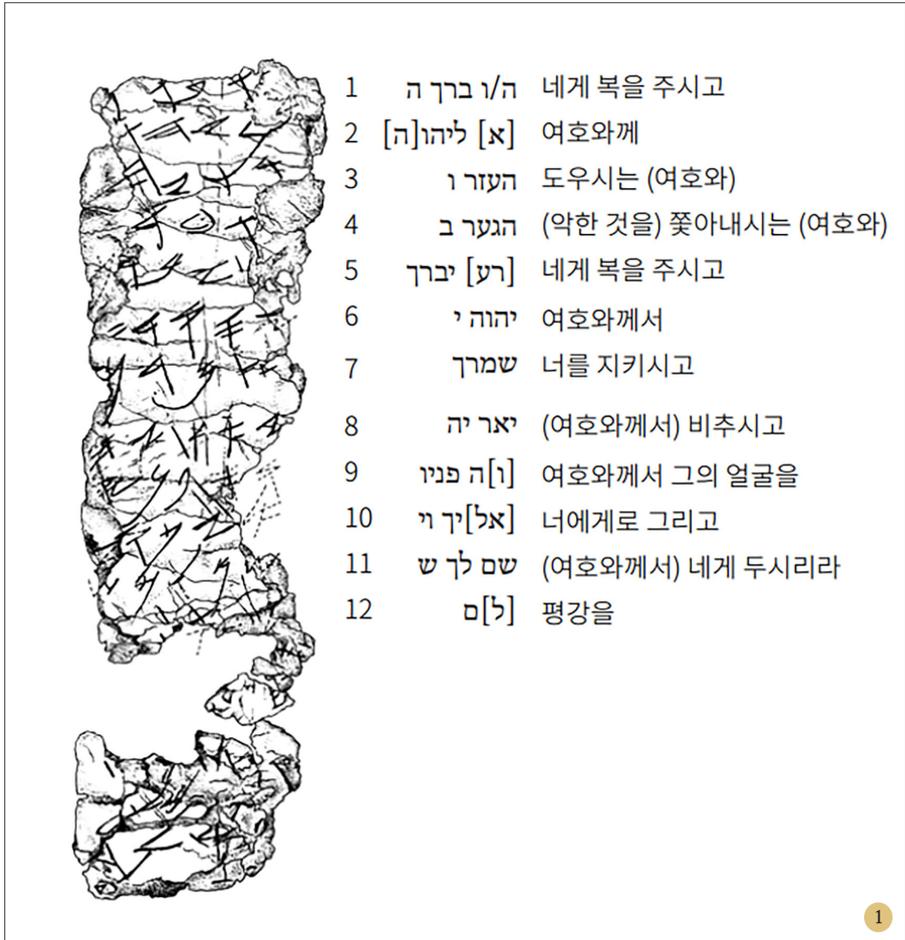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7 케테프 힌놈



‘복’은 누구나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입니다.

“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이 이 구절을 안식일이나, 명절, 그리고 중요한 예식에서 빠뜨리지 않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바람과 더불어,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 “복을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리는 것(수주대토 守株待兔)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민수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억하며 입술에서 되뇌었을까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끌었던 제의와 제의에서 불렀던 노래와 기도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의 성막과 솔로몬이 건설한 성전에서 행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그리고 중반에 이르는 시대에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들에서 고고학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의 성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의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경의 제의와 유사한 메소포타미아의 제의들이 속속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제의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제의가 비

교 연구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유대의 멸망을 전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성경 이야기를 기초로, 둘 사이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사점이 발견될 때마다, 바벨론의 것을 위에 두고, 성경의 것은 바벨론 포로기(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영향을 받은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차용하였다는 주장이 마치 정설처럼 학자들 사이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제의 율법들이 포로기에나 이르러 기록되었거나, 포로기에 경험한 바벨론의 제의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 고유의 것인양 빌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색하였다는 투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근거한다면, 오경에 나오는 성막 제의는 성전 제의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한 후대의 창조적인 기록이며, 역사적으로 실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데에까지 이릅니다.

특히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사장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성전 시기에는 있지도 않았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제사장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또한 포로기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후대의 창작물이 된 셈입니다.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 정신에 근거한 매우 서구 제국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설명입니다. 사실 당시 고고학자들 역시 점령군처럼 현재의 중동 땅에 들어가 발굴을 했으니, 이런 해석들의 뒤에는 발굴물을 해석하는 이의 정신 세계가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1975~76년에 걸쳐서 텔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 발굴팀이 기원전 9~8세기에 잠시 사람들이 살았던 시나이 반도의 쿤틸렛 아즈루드(Kuntilet 'Ajrud)에서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떠올리게하는 문구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포로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의 축

복기도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읊어졌으며, 또 일반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1979년에 오트만 시대(1517~1917년 사이) 현재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던 제국에 무기 창고로 사용하던 고대 무덤들 중의 하나에서 우연히 목걸이 장신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신구들의 용도를 추측하면서, 아마 부적처럼 그것을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든 장신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무덤은 대략 650BCE를 전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가로 27mm 세로 97mm의 얇은 은판이 원통형으로 돌돌 말려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펴 보니, 그 위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금속 제품의 특성상 일부가 부식이 되어서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남아 있는 글자들로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 중의 하나를 폼을 때, 성서학과 고고학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26절에 적혀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이었거든요.

이 발견으로 오경에 나와 있는 성전 제의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과 체계들이 기원전 6세기 초반, 또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조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한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였던 기원전 7세기부터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문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니까요.

몇몇 글자들에 대해서는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독법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은목걸이에 새겨진 글이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이라는 데에는 아직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왜 이리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서 고고학 유물들을 볼 때마다, 땅속 어딘가 고대의 흙 속에 숨어 있을 하나님의 흔적들이 세상의 빛을 볼 그 날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사진설명**

1 케테프 힌놈

2 케테프 힌놈 목걸이 : 발굴된 순서에 따라서 좌측을 Ketef Hinnom I (KH 1), 우측을 Ketef Hinnom II (KH 2) 라고 부르며,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적혀 있는 목걸이는 우측의 것 (KH 2)이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